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eer Acceptance on Korean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김희창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연구조교 이수경
부교수 고애란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Heechang Kim

Dept.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 Sukyung Lee

Associate Professor : Aeran Ko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문헌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eer acceptance on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clothing attitudes and preference for up-to-date style), and 2)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lothing behaviors among subject groups classified by sociometric status.

The questionnaires dealing with public/private self-consciousness, adolescent egocentrism, self-efficacy and clothing behaviors were adapted from previous studies. Peer acceptance was measured using Coie and Dodge(1983)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5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living in Seoul, Korea.

From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eer acceptance on clothing behaviors, clothing sexual attractiveness, clothing exhibition, and clothing importance were found to be influenced by public self-consciousness, adolescent egocentrism and peer acceptance. Fashion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were influenced by egocentrism and self-efficacy. Preference for up-to-date style was influenced by egocentrism,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elf-efficacy.

One-way ANOVA was used for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research variables among subject groups classified by sociometric status. From the result of middle school girls it was revealed that ignored group showed the highest score in clothing importance, whereas both popular group and rejected group showed the lowest score in social self-efficacy. In high school girls, controversial group showed the highest scores in adolescent egocentrism, fashion leadership, and preference for up-to-date style.

I. 서론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자아개념을 확립시켜 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감수성이 예민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보다는 또래집단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들이 속한 집단 내의 행동이나 규칙을 따름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 한다. 즉 청소년기에 있어서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은 행동의 기준이 되며,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또래로부터의 수용 및 인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춘재 등, 1996).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승인이나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복을 사용하며, 또래의 의복과 비슷하게 입음으로써 사회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즉, 의복동조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수용(Smucker & Creekmore, 1972; Williams & Eicher, 1966) 및 사회성(Hamilton & Warden, 1966; Taylor & Compton, 1968)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이 또래수용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힌 대부분의 외국 연구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남·이인자, 1986; 이은미, 1985)에서는 의복행동과 또래수용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 환경적 요인 즉, 교복이라고 하는 획일화된 복장으로 인하여 자유복의 적절한 착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으로는 또래수용을 또래로부터 얼마나 선호되는가의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ie 등(1982)이 제시한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와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이라는 두 차원으로 또래집단 수용을 측정하여 의복행동에 어떻게 관련되며 또한,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자의식, 자기효능감등의 심리적 특성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인 의복과 외모에 관련된 행동특성 중 또래의 수용과 배척에 연관된 특성을 파악하여 그 행동특성을 발전, 보완한다면 청소년기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따돌림이 빈번히 나타나는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현실에서 배척받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및 의복행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청소년 초·중기에 해당하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수용과 심리적 특성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자의식,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둘째, 또래수용에 따른 집단간 심리적 특성 및 의복행동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수용과 의복행동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서 대인관계가 더욱 확

장되는 시기로서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인관계는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역할취득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 사회규칙에 대한 이해 등이 촉진되므로 공격성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의 발달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또래 관계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의 친구들은 동료의식과 레크리에이션의 중요한 원천이며 충고를 주고받으며 가치 있는 소유물을 공유하고 믿을 수 있는 동맹으로서 행동하고 스트레스나 과도기적 시기에 안정성을 제공한다(Parker & Asher, 1987).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중학교 시기인 15~16세 경에 최고조에 달하며(Coleman, 1978), 음악이나 오락 등의 취미활동, 의복, 언어유행과 같은 것에서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이호석, 1989). 또래로부터의 인기의 영향요인으로는 신체적 매력, 스포츠 능력, 심리적인 성숙도와 안정도, 학업성취(이춘재 등, 1996), 명성(Kennedy, 1990), 사회기술(김윤경, 1998) 등이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로부터의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장희숙, 1993), 또래로부터 인기의 정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Walker & Greene, 1986). 또한, 또래로부터 수용 또는 수용되지 못한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Ryan(1966)에 따르면 Canon과 Staples는 인기있는 여학생이 급우들간의 외모규범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uhlen은 사회적 거명점으로 인기/비인기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적절한 의복의 선택과 착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mucker와 Creekmore(1972)의 연구에서도 또래수용과 의복에 대한 인식도, 동조성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연구로서, 이은미(1984)는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기자와 고립자간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인기자집단이 고립자집단에 비해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복관심, 의복의 동조성,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이경남·이인자(1986)의 연구에서도 의복행동 변인인 동조성, 인식도, 만족도에서 인기자와 비인기자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과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또래집단 수용을 단일 차원으로 다루어 왔으나 Coie 등(1982)은 또래로부터 수용 또는 거부되는지의 정도를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와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이라는 두 차원 내에서 또래지위를 구분하여 관련변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선호 차원은 협동이나 지지, 신체적 매력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남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영향 차원은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면서 활동적이고 돌출적인 행동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위를 5가지 유형, 즉 인기 있는 집단, 논쟁거리인 집단, 보통집단, 무시되는 집단, 배척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행동특성을 비교한 결과 인기 있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에 더 많이 거명된 반면, 배척된 학생들은 보통집단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에는 적게 거명되고 부정적인 속성에는 더 많이 거명되었다. 논쟁거리인 학생은 부정적인 상호작용 속성과 긍정적인 행동특성 모두에 많이 거명되었다. 반면 무시되는 학생들은 행동특성에서 보통집단과 유사하였다.

2.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관련될 수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기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은 인지발달에 있어서 사고의 분화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인지발달의 최종단계인 형식적 조작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고를 개념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고도 개념화할 수 있지만,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신들이 믿는 바와 동일하게 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와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이들의 요란한 옷차림 등은 자기자신을 매력적이라 여기듯, 남들도 똑같이 자신을 매력적이라 여기며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 즉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성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김인경, 1993).

상상속의 청중성향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곽금주와 문은영, 1993; 고애란과 김양진, 1996), 가정 경제수준과 월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으며(이부희, 1995),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술부족과 관계가 있다(한상철 등, 1997). 가족관계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에 애착이 클수록,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상상속의 청중성향이 증가했으며(김인경, 1993),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윤진 등, 1989).

한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변화, 자아정체감 추구하고 관련되어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 경향과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다(장근영과 윤진, 1992). 자의식은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으로 구분되는데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는 의복착용이나 인상형성, 개인의 외적 행동양식 등의 자기표현에 관심을 갖는 특성이며,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태도, 가치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자아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심리적 특성이다(Elliott, 1984).

자의식의 정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적 자의식이 더 높으며(신영주, 1996), 사적 자의식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nright 등, 1979).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쉬우며(Fenigstein 등, 1975), 사교성 및 자기모니터링이 높으며(Turner 등, 1978), 수줍음과 사회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eek & Buss, 1981). 한편,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간의 일관성이 있고, 일반적 판단시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지각된 경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cheier, 1980).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관련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중 최근에 부각된 것의 하나로써 개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1).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자신의 성공을 능력이나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Schunk, 1990).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더 잘 적응하며(Mueller & Major, 1989),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평가한 효능감 기대(efficacy expectation)에 따라 또래집단의 행동이나 언어, 의복스타일의 모방정도를 결정하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사회적 행동 및 성행동 등을 결정한다(장휘숙, 1993).

이러한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성과 의복행동을 관련시킨 연구들에 따르면, 상상속의 청중 성향이 높을수록 여자 중·고등학생의 과시/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고애란과 김양진, 1996; 이부희, 1995),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유행의사선도력, 의복관심, 의복동조성, 자신의 유행성 지각, 실제 유행성 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의복에 대한 관심 및 관여는 자아를 사회적 객체로 보는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Miller 등, 1982). 남녀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Kwon(1991)의 연구에서는, 사적 자의식이 높은 여학생이 낮은 여학생보다 의복선택시 인지된 기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기분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사적 자의식은 의복동조성(김민수, 1988), 신분상징성 및 유행(김민수, 1992)과 양의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수경(1998)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유행선도력, 심리적 의존성, 주의집중성, 유행선택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국내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의 타당도가 인정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의식: 자의식은 Fenigstein 등(1975)이 개발한 자의식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 SCS) 중 공격적 자의식 7문항과 사적 자의식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공격적자의식 $\alpha=.78$, 사적 자의식 $\alpha=.62$ 로 나타났다.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은 상상속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 NIAS)의 한국판(김인경, 1993)을 사용한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의복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외모/인기 요인에 관련된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나 인기에 대한 상상속의 청중상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alpha=.79$ 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 SES) 중에서, 자신의 대인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70$ 로 나타났다.

또래수용: Coie와 Dodge(1983)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한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장 싫어하는 친구 5명씩을 적게 한 후, 각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거명 및 부정적인 거명의 점수를 더하여, 학급단위로 가장 좋아하는(Like Most : LM) 점수와 가장 싫어하는(Like Least : LL) 점수로 표준점수(Z점수)화 하였다. 이 점수들을 각각 또래수용과 또래비수용 점수로서 회귀분석시 사용하였다. 또한, 또래지위집단은 가장 좋아하는 점수와 가장 싫어하는 점수를 이용하여 <표 1>에서의 같이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 SP) 점수와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 SI) 점수를 계산하여, 다섯 가지 또래지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의복태도: 의복태도는 의복의 성적 매력성, 주의집중성, 유행선도력, 의복중요성, 심리적 의존성의 측면을 포함하는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정주(1989), 이수경(1998), 이연희(1996), 최윤경(199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복태도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총 다섯 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분석시 여러 요인에 대해 높은 부하량을 갖거나 설명력이 현저히 낮은 9문항은 제외되었다. 총 설명력은 58.36%이며 신뢰도는 $\alpha=.66\sim.78$ 로 안정되게 나타났다. 도출된 각 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이성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옷차림에 신경쓰는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의복 성적 매력성이라 명명하였다. 총 5문항으로 설명력은 26.07%이다. 요인 2는 총 3문항으로 설명력은 12.40%이며,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을 통해 타인의 시선

<표 1> 또래지위의 구분 기준

또래지위 집단	구분조건
인기있는 집단	SP > 1, LM > 0, LL < 0
논쟁거리인 집단	SI > 1, LM > 0, LL > 0
보통 집단	-0.5 < SP < 0.5, -0.5 < SI < 0.5
무시되는 집단	SI < -1, LM < 0, LL < 0
배척받는 집단	SP < -1, LM < 0, LL > 0

SP = LM - LL, SI = LM + LL

〈표 2〉 의복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N=485

의복태도 문항 및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1 : 의복 성적 매력성					
나는 남자친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옷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쓴다.	.74	.18	.16	.16	.07
나는 모임에 갈 때, 이성이 있는 경우에는 옷차림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68	.08	.07	.18	.05
나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에도 평소에 입던 그대로의 평범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65	.10	.02	.27	.05
나는 새옷을 살 때, 그 옷이 내 남자친구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산다.	.65	.08	.16	.11	.11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옷차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6	.06	.15	.20	.11
요인 2 : 의복의 주의집중성					
나는 남의 눈에 띄는 특이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09	.78	.15	.07	.03
남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옷을 입고 싶다.	.08	.71	.08	.20	.09
나는 강렬한 색으로 배색되거나 무늬가 대담한 옷을 좋아하는 편이다.	.21	.63	.11	-.09	.14
요인 3 : 유행선도력					
가끔 친구들이 구입하는 의복스타일에 대해 충고를 해준다.	.02	-.03	.75	.06	.09
친구들과 의복유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듣기보다는 내 의견을 말해주는 편이다.	.12	.25	.74	.09	.01
친구들은 나를 의복유행에 관한 좋은 충고자라고 생각한다.	.11	.12	.63	.05	.08
나는 새로 유행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친구들보다 먼저 사는 편이다.	.06	.36	.43	.03	.20
요인 4 : 의복중요성					
나는 의복을 걸치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10	.07	.18	.70	.05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다른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는 내게 별로 중요치 않다.	.26	.07	-.12	.64	.01
옷은 첫인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18	.18	.19	.63	.09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24	.07	.21	.51	.06
요인 5 : 심리적 의복의존성					
나는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01	.09	.11	.06	.82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거나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옷을 바꿔입어 기분전환을 한다.	.15	.14	.07	.15	.78
나는 기분을 돋우기 위해 새 옷을 사기도 한다.	.30	.18	.29	.09	.49
고 유 근 (Eigenvalue)	7.30	3.07	2.16	1.56	1.26
누적변량 (%)	26.07	38.47	46.03	52.88	58.36
신뢰도 (Reliability)	.78	.69	.68	.66	.66

을 끌거나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태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의복의 주의집중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새로운 스타일을 남보다 먼저 받아들이거나, 유행경향을 인식하는 자신의 능력,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나타내는 4문항이 묶여 유행선도력이라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75.6%이다. 요인 4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옷차림의 중요성, 혹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의복의 중요성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의복중요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으로 의복이 주는 느낌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의복을 통해 기분전환을 하고자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54.9%이다.

유행선택행동: 유행선택행동은 포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머리모양 및 장신구 등을 실제로 착용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98년 봄

의 유행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과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유행품목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강남과 강북의 여자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제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집계된 유행품목에 대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5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각의 문항에 대해 착용여부를 진위형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선택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75$ 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으로, 1998년 4월 27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강남과 강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2개교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총 63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8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44.3%, 고등학생이 56.7%였으며 지역별로는 강북이 55.9%, 강남이 44.1%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26.6%, 판매직(21.6%), 기술직(16.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은 반이상이 중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상 21.9%, 중하 11.8%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은 SPSS-pc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요인분석(pc model, Varimax Rotation)과 신뢰도 검사, 다중회귀분석과 일원변량 분석 및 Tukey 다중비교검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별로, 의복태도 5요인과 유행선택행동 각각에 대해 다단계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심리적 특성변수는 자아중심성, 공격·사적 자의식, 사회적 자기효능감, 또래수용, 또래비수용의 6개 변인이며, 또래수용은 가장 좋아하는 점수(LM)를, 비수용은 가장 싫어하는 점수(LL)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의복 성적 매력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의 영향

중학생의 경우, 의복 성적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격 자의식($\beta=.363$)과 자아중심성($\beta=.326$)으로, 이 두 개의 변인에 의해 33.5%가 설명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의복 성적 매력성은 공격 자의식($\beta=.333$), 자아중심성($\beta=.302$), 사적 자의식($\beta=-.163$), 또래 비수용($\beta=.112$)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네 변인에 의해 26.5%가 설명되었다.

즉, 여자 중학생은 공격 자의식과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높을수록 의복을 성적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자 고등학생은 공격 자의식과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높고, 사적 자의식이 낮으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할수록 의복 성적 매력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등학생 집단에서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거명이 높을수록 의복 성적 매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급 내의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학급 내의 또래보다는 학교 밖의 일탈된 또래, 특히 이성친구와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옷차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격 자의식 요인은 의복 성적 매력성에 양의 영향을 나타낸 반면 사적 자의식 요인은 음의 영향을 나타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의 내면적인 상태보다는,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외적인

〈표 3〉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학 년	독립변인	β	t값	R ²	F값
의복태도	의복 성적 매력성	중 학생	공적자의식	.363	5.693***	.335	51.781***
			자아중심성	.326	5.106***		
		고등학생	공적자의식	.333	5.791***		
			자아중심성	.302	5.347***		
	의복의 주의집중성	중 학생	사적자의식	-.163	-2.990**	.265	24.586***
			또래비수용	.112	2.098*		
			자아중심성	.366	5.574***		
			공적자의식	.230	3.524**		
		고등학생	자기효능감	.179	2.969**		
			또래 수용	-.129	-2.160*		
	유행선도력	중 학생	자아중심성	.247	4.174***	.085	13.168***
			사적자의식	.156	2.637**		
고등학생		자아중심성	.332	5.151***			
		자기효능감	.196	3.046**			
의복중요성	중 학생	사적자의식	.136	2.116*	.182	15.796***	
		자아중심성	.334	5.858***			
		자기효능감	.193	3.386**			
		공적자의식	.424	6.647***			
	고등학생	자아중심성	.218	3.405**			
		또래비수용	-.145	-2.526*			
심리적 의복의존성	중 학생	공적자의식	.372	6.322***	.342	36.066***	
		자아중심성	.166	2.820**			
	고등학생	자아중심성	.208	2.865**			
		공적자의식	.200	2.776**			
유행선택행동	중 학생	자기효능감	.191	2.939**	.154	13.334***	
		공적자의식	.198	2.836**			
		자아중심성	.198	2.825**			
	고등학생	자아중심성	.371	6.697***			
		자기효능감	.230	4.159***			
		공적자의식	.199	3.290**			

p<.01 *p<.001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이성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옷차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복 주의집중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의 영향

중학생의 경우, 의복의 주의집중성은 자아중심성($\beta=.366$), 공적 자의식($\beta=.230$), 자기효능감

($\beta=.179$), 또래 수용($\beta=-.129$)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30.5%가 설명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중심성($\beta=.247$)과 사적 자의식($\beta=.156$)에 의해 의복 주의집중성의 8.5%가 설명되었다.

중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주의집중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

에 대한 능력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므로, 타인으로부터 관심이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의복의 주의집중성 요인에 또래 수용이 음의 영향을 나타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등학생에 비하여 사회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학생들은 새로운 집단에 대한 적응상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은 타인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의 의복보다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 내의 의복기준에 맞는, 즉 또래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극단적인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는 여학생들이 오히려 또래로부터는 무시되며, 또래집단의 의복에서 가장 많이 입혀지는 스타일을 인지하여, 그 스타일에 동조할수록 또래로부터 더 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Hamilton & Warden, 1966; Smucker & Creekmore, 1972). 또한, 중학생은 자신의 외모나 인기가 좋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관찰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인식할수록, 타인으로부터 주의를 끌기 위해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고애란·김양진,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복의 주의집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공적 자의식에서 사적 자의식으로 변화한 것은,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느낌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학업부담이나 또래와의 학업경쟁에 의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타인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의복을 통해 발산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3) 유행선도력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의 영향

중학생의 경우, 유행선도력에는 자아중심성($\beta=.332$), 자기효능감($\beta=.196$), 사적 자의식($\beta=.136$)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세 변인에 의해 18.2%가 설명되었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행선도력은 자아중심성($\beta=.334$), 자기효능감($\beta=.19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가 설명되었다.

중학생 집단에서 유행선도력이 사적 자의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행선도자들이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민감한 내적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최선희, 1984), 이는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평가에 대한 확신이 높으므로(Claeye, 1984), 이러한 사적 자의식의 측면이 새로운 유행경향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자신의 외모가 특출하거나 인기가 있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강한 자신감을 가질수록,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남보다 먼저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이 그 스타일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교성 및 적극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러한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하여 의복유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유행선도력이 자신감 및 사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조필교·구은영, 1986).

4) 의복중요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의 영향

중학생의 경우, 의복중요성에는 공적 자의식($\beta=.424$)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자아중심성($\beta=.218$)과 또래 비수용($\beta=-.14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34.3%가 설명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의복중요성은 공적 자의식($\beta=.372$), 자아중심성($\beta=.166$)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에 의해 20.2%가 설명되었다.

중학생 집단에서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할수록 의복중요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복과 외모에 대한 주된 관심을 나타내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있어,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는 의복이나 장신구 등에 대한 그들만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거나 무관심한 행동, 혹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의복행동 등이 또래로부터 거부되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고, 자신의 외모나 인기가 좋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옷차림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적 객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므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하여,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차림에 대해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심리적 의복의존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의 영향

중학생의 경우, 심리적 의복의존성에는 자아중심성($\beta=.208$), 공적 자의식($\beta=.200$), 자기효능감($\beta=.19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에 의해 15.4%가 설명되었다.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자아중심성($\beta=.199$)만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3.6%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심리적 의복의존성에 공적 자의식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의 여학생들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착용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하며, 의복을 통한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 및 자신감이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외모나 인기가 좋아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의복을 기분전환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유행선택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의 영향

중학생의 경우, 유행선택행동에는 자기효능감($\beta=.315$), 공적 자의식($\beta=.198$), 자아중심성($\beta=.198$)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에 의해 21.5%가 설명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중심성($\beta=.371$), 자기효능감($\beta=.230$)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에 의해 19.7%가 설명되었다.

중학생 집단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할수록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는 의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적 자의식이 유행성 및 동조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민수, 1988, 1992; 이부희, 1995).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외모나 인기가 좋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성향이 높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장신구 등을 더 많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더 적극적이며 사교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학생일수록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는 의복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유행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2. 또래수용에 따른 집단간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차이

또래수용에 따른 집단간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별로 또래지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튜키(Tukey)의 다중비교방

법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위 집단을 Coie와 Dodge (1983)의 분류방법에 의하여 다섯 가지의 또래지위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중학생의 논쟁집단과 보통 집단, 그리고 고등학생의 보통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의 인원인 8명, 3명, 6명만이 각각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중학생의 논쟁집단과 보통 집단, 고등학생의 보통집단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중학생에서의 또래지위 집단간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차이

심리적 특성의 차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표 4>에서와 같이 인기집단과 배척집단이 무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긍정적 거명 점수만 높은 인기집단과 부정적 거명점수만 높은 배척집단의 학생들이 긍정적·부정적 거명점수가 모두 낮은 무시집단의 학생들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기집단의 학생들이 무시집단의 학생들보다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어려움을 덜 느끼고, 먼저 말을 걸거나 찾아가는 등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무시집단의 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또래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또래 비수용 집단인 배척집단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같은 반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고 있는 배척집단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만의 하위집단을 형성하여,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여러 가지 문제행동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이창진, 1993), 이러한 점에서 배척집단 학생들 스스로가 지각하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하위집단 내의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의해 생겨난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복행동의 차이: <표 4>에서와 같이 의복행동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 중 의복중요성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무시집단이 배척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긍정적·부정적 거명 점수 모두가 낮은 무시집단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거명 점수만 높은 배척집단의 학생들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옷차림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무시집단의 학생들이 사

<표 4> 중학생의 또래지위 집단간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행동		또래지위집단			F값
		인기집단(n=60)	무시집단(n=23)	배척집단(n=48)	
심리적 특성	공적 자의식	25.60	26.09	24.73	.803
	사적 자의식	20.07	19.70	18.74	1.910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20.20	20.48	19.23	.621
	사회적 자기효능감	18.67 ^b	15.17 ^a	17.40 ^b	9.592***
의복행동	의복 성적 매력성	15.61	16.43	15.31	.538
	의복의 주의집중성	7.98	8.35	8.00	.198
	유형선도력	10.73	10.30	10.47	.216
	의복중요성	14.85 ^{ab}	15.52 ^b	13.92 ^a	3.211*
	심리적 의복의존성	7.83	6.91	7.35	1.147
	유형선택행동	12.67	10.82	12.17	1.447

a, b : Tukey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 *p<.05 ***p<.001

회적 기술에 대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또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의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등학생에서의 또래지위 집단간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차이

심리적 특성의 차이: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표 5>에서와 같이 논쟁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긍정적·부정적 거명점수가 모두 높은 논쟁집단의 학생들이, 부정적 거명점수만 높은 배척집단, 긍정적 거명점수만 높은 인기집단, 긍정적·부정적 거명점수가 모두 낮은 무시집단의 학생들보다, 외모나 인기가 좋아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의복행동의 차이: 고등학생의 경우, <표 5>에서와 같이 유행선도력은 논쟁집단이 인기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유행선택행동은 논쟁집단이 무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긍정적·부정적 거명점수가 모두 높은 논쟁집단의 학생들은, 긍정적 거명점수만 높은 인기집단의 학생들보다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이나 장신구 등을 시기적으로 먼저 받아들여, 그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이 채택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부정적 거명점수가 모두 낮은 무시집단의 학생들보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선택행동에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복태도의 유행선도력요인과 유행선택행동이 또래로부터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논쟁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논쟁집단의 학생들이 같은 반 또래들에게 의복유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복스타일에 대한 조언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수용 여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행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이와 같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특성과,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또래와 비슷해지고자 하는 동조적인 행동 등이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인의 의복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적인 성향과 정보제공자로서 타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과시적인 성향 및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좀 더 색다른, 독특한 존재로 보이고자 하는 차별적인 행동 등이 같은 반의 다른 또래로부터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논쟁집단의 이와 같은 지배적이고 과시적인 성향 및 차별적인 행동 등이 다른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 고등학생의 또래지위 집단간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행동		또래지위집단				F값
		인기집단(n=49)	논쟁집단(n=21)	무시집단(n=45)	배척집단(n=36)	
심리적 특성	공적 자의식	25.71	27.67	26.34	25.31	1.606
	사적 자의식	21.82	22.10	20.16	21.14	2.64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18.84 ^a	22.76 ^b	18.18 ^a	19.03 ^a	5.671**
	사회적 자기효능감	17.94	18.71	16.53	17.72	2.622
의복행동	의복 성적 매력성	15.04	17.05	14.89	15.44	2.214
	의복의 주의집중성	7.84	9.05	7.71	7.67	1.738
	유행선도력	9.88 ^a	11.67 ^b	10.04 ^{ab}	10.78 ^{ab}	3.036*
	의복중요성	14.88	15.76	14.71	14.92	.856
	심리적 의복의존성	7.61	8.76	7.18	8.11	2.225
	유행선택행동	12.53 ^{ab}	14.71 ^b	11.29 ^a	13.36 ^{ab}	4.263**

a, b : Tukey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

*p<.05

**p<.01

한편,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고 있는 인기집단에서 유행선도력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또래들에게 인기 있는 친구의 특성이 또래를 잘 웃기고 즐겁게 하거나, 성격이 좋은 경우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안귀덕, 1992; 이희연, 199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 성적 매력성과 의복중요성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 의복의존성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의복 성적 매력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공적 자의식과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었고, 의복의 주의집중성과 유행선도력에는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의복중요성에는 공적 자의식이, 심리적 의복의존성에는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유행행동에는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수용에 따른 집단간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인기집단과 배척집단이 무시집단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논쟁집단이 배척, 인기, 무시집단에 비하여 외모/인기 요인의 자아중심성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래수용에 따른 집단간 의복행동의 차이는, 중학생 집단에서 무시집단이 배척집단보다 의복중요성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논쟁집단이 인기집단보다 유행선도력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유행선택행동은 논쟁집단이 무시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임의표집 방법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여자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또래지위에 따른 집단의 5 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세 개 또는 네 개 집단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을 통해 또래지위 집단별 인원수를 일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외에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및 학교성적, 사회기술, 성격 등의 변인과 함께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병행하여 살펴본다면, 또래지위에 따른 집단간의 의복행동의 차이 및 행동특성 등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 의하면, 논쟁집단과 배척집단은 외모/인기 요인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성향이나 유행선도력, 유행선택행동 등의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행동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또래지위에 있어 서로 상반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두 집단의 의복행동에 대하여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 연구해봄으로써 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고 있는 배척집단이 학교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임을 감안할 때, 그들은 학급 내의 또래보다는 학급의 혹은 학교 밖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그들 고유의 하위문화에서 공유하는 의복행동의 특성을 관찰 및 심층적인 면접과 병행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애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2) 광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3) 김민수(1988). 자의식과 의복동조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민수(1992). 성인여성의 자의식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오산전문대학교 논문집, 12, 487-511.
- 5) 김순구·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6) 김윤경(1998).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 사회기술 및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김인경·윤진(1988).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 -인지발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54-62.
- 9) 문은영(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기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배정주(1989). 유행선도력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심정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안귀덕(1992). 한국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활동. 한국의 청소년 문화II -청소년 문화의 실상과 문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3) 이춘재 외 8인(1996).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14) 윤진·김인경·김길청(1989). 청소년 비행과 자아중심성 발달과의 관계. 형사정책, 4, 67-96.
- 15) 이경남·이인자(1986). 사춘기 여학생의 의복의 동조성, 인식도, 만족도와 가정배경 및 학급내 인기도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19-26.
- 16) 이수경(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은미(1984).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창진(1993). 고교생을 반학교 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호석(1989). 동조유발자가 청소년의 가치관 동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희연(1994). 청소년 또래문화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 155-173.
- 21) 장근영·윤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157-175.
- 22) 장휘숙(1993). 청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장승.
- 23) 조필교·구은영(1986). 패션리더쉽과 자신감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2), 51-57.
- 24) 최선형(1984). 유행선도자의 특성연구 - 유행선도력, 사회적 성격, 의복동조성, 유행정보원 사용도간의 관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최윤경(1990). 성인여성의 성역할태도 및 직업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한상철 등(1997).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27) Asher, S. R.(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Asher, S. R. & Coie, J. D.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8) Bandura, A.(1981). Self-referent thought: A developmental analysis of self-efficacy. in Flavell, J. H., & Ross, L.(Ed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9) Cheek, J. M. & Buss, A. H.(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 30) Claeys, W.(1984).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 and other-schemata: Implications for the self in depression. *Advances in Psychology*, 21, 31-48.

- 31) Coie, J. D. & Dodge, K. A.(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2.
- 32)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33) Coleman, J. C.(1978). Current contradictions in adolescent theory. *J. of Youth and Adolescence*, 7, 1-11.
- 34) Elkind, D.(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35) Elliott, G. C.(1984). Dimensions of the self-concept: A source further distinction in the nature of self-consciousness. *J. of Youth and Adolescence*, 13(4), 285-306.
- 36) Enright, R. D., Lapsley, D. K. & Shukla, D. G.(1980). Adolescent egocentrism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14, 687-695.
- 37) Enright, R. D., Shukla, D. G. & Lapsley, D. K.(1979). Adolescent egocentrism-sociocentrism and self-consciousness. *J. of Youth and Adolescence*, 9, 101-116.
- 38)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39) Hamilton, J. & Warden, J.(1966). The student's role in high school community and his clothing behavior. *J. of Home Economics*, 58(10), 789-791.
- 40) Kennedy, J. H.(1990). Determinants of peer social status: Contributions of physical appearance, reputation, and behavior. *J. of Youth and Adolescence*, 19(3), 233-244.
- 41) Kwon, Y. H.(1991).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mood and self-consciousness on the selection of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 J.* 9(4), 41-46.
- 42)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 J.* 10(4), 363-368.
- 43)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44) Parkhurst, J. T., & Asher, S. R.(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45) Ryan, M. 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46) Scheier, M. F.(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514-521.
- 47) Smucker, B. & Creekmore, A. M.(1972).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me Economics Res. J.* 1(2), 92-97.
- 48) Turner, R. G., Scheier, M. F., Carver, C. S. & Ickes, W.(1978). Correlates of self-consciousness. *J.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85-289.
- 49) Walker, L. S. & Greene, J. W.(1986).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self-esteem. *J. of Youth and Adolescence*, 15(4), 315-322.